

NEWS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전쟁·폭력에 저항 인권도시 '오월 광주'서 뭉쳤다



저수는 피해 양식장

저수는 피해 어업인 안정 지원 도, 88개소 복구비 32억 확정

전남도는 저수 피해 양식장을 지원하고 어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가 제출한 피해 복구계획이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저수 피해 양식장 88개소와 고추 양식장이 88개소에 재난지원금 32억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금 24억원이 지원된다.

피해율이 높은 53여기에 대해서 최대 2년간 수산정책자금 11종 164억원 규모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었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어류 폐사처 처리비와 저수 피해 양식장 가공·관측비 4억원을 편성해 피해 어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경기침체로 양식수산물 출하가 지연되면서 저수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다가올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투표율 높이지'서 계속

공약으로는 복구 물놀이장 개장식에서 물풍선 던지기, 복구민의 날 행사에서 노래 부르기, 6월 열린 만남의 날에 '부끄부끄' 인형탈 착용 후 참석, 하지(6월21일)에 아이스크림(얼음깨기) 퍼포먼스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된 공약은 투표율 1위 달성 시 문인 구형장 이 직접 이행할 예정이다.

광산구도 투표율을 높여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동에 3개 이상 게시하고, 첫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찾아 투표를 독려한다. SNS를 활용한 홍보도 이어갈 구상이다.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서승 "광주, 저항도시 우뚝 내일까지 '평화와 연대' 모색...시민 참여 프로그램 '다채'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전 세계 인권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평화와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 포럼은 광주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네스코(UNESCO), 광주 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세계 각국의 인권전문가 등 1500명이 참석한다.

올해 포럼은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강기정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맨손으로 총구를 움켜쥐며 가장 위헌적인 내란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12·3 비상계엄을 이겨낸 오늘의 민주주의는 45년 전 5·18의 유산이다. 수많은 이들이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하는 이유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존재한 보듬서 광주가 된 이유이다"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

질 것이다. 전쟁과 폭력으로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사랑, 희망, 기쁨이 있다"며 "그 어떤 전쟁과 폭력도 반대하며, 평화와 혁명을 함께하는 전 세계 인권도시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함께 나아가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는 '저항의 도시로 우뚝 서는 광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서 교수는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조명하며 "광주는 인류사에 '권력에 저항한 도시'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화해 정신까지 모두 5·18정신이 아우르고 있으며, 세계인권도시선언까지 광주는 세계인권의 정수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인권, 생태, 평화의 접점을 짚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대훈 (사)피스모평화교육연구소장,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신형석 (사)국민주권연구원장, 제임스 허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파르티나 빈테 지카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 사진제공=광주시

생물다양성과 인권이 교차하는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형석 (사)국민주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훈 (사)피스모평화교육연구소장, 제임스 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파르티나 빈테 지카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 등이 평화구축 연대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밖에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

회의, 국제인권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인권 쟁점을 다룬다.

주제회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여성, 마을과 인권, 지구촌 반폭력 등 7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별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국가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저항해 온 항쟁도시 사례를 공유한다. 또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 회의, 인권논론포럼 등이 이어진다.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16일 오후 1시30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필독서로 선정된 '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차인표 작가의 북토크콘서트가 열린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이영미의 평화방송'의 저자 이영미 작가의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방송'이 진행된다.

신청 및 세부 일정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기념식 참석 자격 없다"

오월어머니집 등 성명서 발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밝힌 것에 대해 (사)오월어머니집이 반발했다.

(사)오월어머니집과 (사)5·18서울 기념사업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내

관공범 부역 행위를 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5·18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는 상황에 안 위원장은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며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직접 판결했던 장본

인인 안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제2의 5·18이 벌어질 뻔했던 12·3내란이 일어난 후 다시 반민주 반인권적인 직책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안 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서의 극우파 폭동을 옹호하는 답변서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25개 품목 추가

광주에 고향사랑기부부를 하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유니폼과 프로축구 광주 FC 기념품이 할인되고 '청소를 부탁해'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신규 답례품 25개를 추가, 기존 51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신규 답례품 중 KIA의 유니폼은 고향사랑기부자에 한해 시중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또 광주FC 공식품 전용 쿠폰도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광주시는 스포츠 팬들의 자발적인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고향사랑기부품 중에는 생활형 돌봄서비스 '청소를 부탁해'도 포함됐다.

서비스는 광주사회서비스원(안심돌봄센터)이 직접 운영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신규 추가된 답례품은 22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사이트를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강기정 시장, '생애 첫 투표' 고등학생 독려

금파공고 학생들에 '투표권 투쟁 역사' 등 의미 공유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금파공업고등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18세 학생들과 참정권의 의미를 나눴다. 이 자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내기 유권자로 첫발을 내딛는 고등학생들에게 투표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등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광주지역 18세 청소년은 6457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한 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얻어진 결과이고, 대한민국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87년에서야 직선제가 도입됐다"며 6월 민주항쟁,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인권운동 등 투표권 투쟁의 역사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투표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

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서야 주어졌다"며 "생애 첫 투표를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고, 투표권이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들은 가족·이웃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광주 투표율 92.5%라는 불가능한 꿈을 내걸고 광주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뻔히 보이는 불가능의 길을 걸어야 한다. 큰 꿈을 꿀수록 깨어진 조각도 큰 법이다"며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6월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시민이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거소투표소 확대, 청년층 투표 참여 유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투표자 대상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잠깐 멈춤, 생애 첫 투표' 응원 캠페인 등 6대 투표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우로 173 내성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